

□ 박세리 신드롬을 통해 본 스포츠 마케팅

필드위의 황금거위 언론과 상업주의로 자란다

마 정 미
〈문화평론가〉

1998년 여름 서울, '지금' '여기'의 영웅이 박세리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미국 여자프로골프 대회(LPGA)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신기록을 수립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장쾌했다. 박세리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로 진출한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이라는 점에서 보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각계의 들뜬 반응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언론은 그녀의 몸값을 따져 보느라 바쁘고, 여행사는 골프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골프여행상품 판촉에 나섰다. 박세리의 출신지역 광역단체장은 박세리 기념 골프대회를 창설하겠다고 표명하는가 하면, 출신 고교에서는 기념조형물과 기념관까지 건립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움직임은 박세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순진한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련의 순진한 발상 중 으뜸인 것은 정부의 박세리 훈장수여이다. 문화관광부가 행사부에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요청한 것. 그러나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프로 선수에 1등급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훈장 건은 국민의 반목을 샀다.

박세리가 '잔다르크'처럼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것은 무리가 아니다. 영웅의 이미지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환멸감과 열패감을 맛보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된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영웅을 가리켜 "분열 증세를 보이는 모든 경향을 한 곳으로 모아 비합리적인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별자리 같은 이미지"라 말했다.

현대의 영웅은 대중스타와 스포츠스타로 대체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오늘의 영예를 얻기까지에는 집념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고 가족의 희

배, 홀컵 안에서 공을 끄집어내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동작별로 텔레비전 카메라의 시선을 잡을 수 있도록 일곱 군데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고 한다. 박세리는 걸어다니는 삼성의 광고판이었던 셈이다. 공짜로 옷 입혀 주고 엄청난 돈까지 대주는, 불투명한 투자인 이 스포츠 마케팅은 성공했을 경우 천문학적인 광고 효과를 거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박세리 광고 효과를 1억 7,000만 달러로 계산했다. 방송과 인

사안이 되었다.

신드롬 제조기 '언론'

박세리를 영웅으로 만들고 상품화에 앞장선 일등 공신은 언론이다. 대회 우승 때마다 한국언론들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국민들에게 한 마디'라거나 '외국 선수들을 물리친 소감'을 묻곤 했다. 국민에게 힘을 돋구어 주었던 기자들의 이런 질문은 사실은 넌센스요 국수주의가 아닐 수 없다. 박세리는 태극기를 걸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국적없는 프로의 세계에, 상금과 트로피를 목표로 경기에 임하는 프로 골퍼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일간지는 '돈방석에 앉은 박세리' '몸값은 타이거 우즈의 절반 수준' '스포츠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식으로 스포츠 상업주의와 상품가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가 하면 박세리의 골프경기는 공중과 텔레비전과 케이블 TV를 통해 계속 되풀이되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되새김질하게 했다. 뿐 아니라 박세리와 그의 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앞다투어 방송되어 모든 매체에는 박세리의 근황과 신화가 넘치고 있다.

봄, 신드롬, 패드, 크레이즈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은 한 시대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환경과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박세리 붐도 우리 경제여건이나 사회 분위기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의 선정성과 상업주의로 더욱 부풀려지고 편향된다는 것이다. 덕분에 스포츠에 밀려 다른 정보는 언론에 보도될 기회를 잃는다. 온 국민의 시선이 박세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안 국회는 공전되고 재보선 선거는 불발로 얼룩졌으며, 노사정 합의는 결렬되었다. 박세리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스포츠 열풍 속에서도 흔쾌해지지 않는 눈이 필요하다.

언론은 그녀의 몸값을 따져 보느라 바쁘고,
여행사는 골프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골프여행상품 판촉에 나섰다

생과 적려가 있었다.

상품 가치로서의 박세리

이제 박세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스포츠 우먼'의 반열에 들어섰다. 언론이 쓰는 표현을 빌어 박세리의 '몸값'을 계산해 보면 전문가들과 언론에 의해 추장된 바로 약 1500만 달러에 이른다 한다. 그렇다면 정작 후원사인 삼성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을까. 텔레비전을 통해 골프 대회 중계를 지켜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박세리가 움직일 때마다 삼성 로고를 보아야 했다. 이 로고는 박세리가 스윙하거나 필드를 걸어가

때 매체를 고려한 광고 효과는 약 5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 측은 박세리의 경기시장을 담은 기업 광고를 실어 기업 이미

지 제고에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세리 캐릭터와 이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부대상품 판촉과 광고효과를 계산하면 관련 산업 규모는 엄청나다. 나이키 로고가 그려진 타이거 우즈의 모자처럼 박세리 패셔도 조만간 유행될 조짐이다. 서태지의 음반이 상업성과 뿔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스포츠 마케팅도 이미 상업성과 뿔 수 없는



□ 현장취재 - 그때 그 시절 아버지 이야기

다시 느낀다
그때의 땀냄새를
어려웠던 시절,

전파사, 만화가게, 왕대포집, 옷수선집... 그 벽에는 아이들이 그리다 만 낙서가 여지거기다. 아마 "철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라고 쓰려다 주인에게 들켜 줄달음을 쳤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 머리 위로는 전기줄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반공 현수막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의도 통일전시관에서는 '50·70년대 그때 그 시절 아버지 이야기'란 제목의 생활사 자료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자료전은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부모님 세대들이 살던 그 때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안의 전시품들은 자료 나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십년전의 한 동네를 찾은 듯한 느낌을 주어 잘 만들어 놓은 영화세트장을 방불케 한다.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흑백 TV를 보고,

살집에 들어가 보리 겹집을 까 보기도 한다. 연탄집 앞 지게를 둘러메 보고, 달고나를 맛볼 수도 있다. 이 곳은 기존의 박물관의 전시적 개념이 아닌 체험적 개념을 중시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예드림의 서상호씨는 "어려운 IMF시대이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지난 어려운 시절을 다시금 떠올려 부모님 세대에게는 새롭게 일어 설 수 있는 용기를, 학생들에게는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관람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보여주는 공연 문화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 체험을 통한 볼거리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역부족인 것일까? 이 행사를 찾은 한 중년부인은 "나 어릴적과 똑 같아. 하지만 요즘 애들이 이걸 보고 공감 할 수 있을런지..."라며 지난 시절 추억을 떠올린다. 한편 신나게 이것 저것을 만지며

돌아다니던 한 꼬마 아이는 "이런 것을 만지는 건 참 재미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다"고 말해 편의, 흥미, 감각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 물질만능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어떻게 살아가는 중에도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우리나라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도성장, 눈부신 경제발전, 수출대국, 윤택한 생활' 등 귀에 박힐 듯한 단어들이 연일 방송과 신문지면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니다."

1998년 지금은 IMF, 구조조정, 실업, 퇴출, 홈리스... 등 안타까운 현실이 연일 방송과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번 자료전이 그 때 그 시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흥건한 땀 냄새가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퍼질 수 있길 기대한다.

〈류지는 기자〉

문화단신

'쌍투스 코러스' 정기공연

오는 8월 7, 8일 양일간 경인지역 대학연합합창단 '쌍투스 코러스'가 제 28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이의 꿈', '해피 투게더', '문 리버'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이며 7일은 오후 7시, 8일에는 오후 4시와 7시에 공연한다. 자세한 문의는 02) 744-7303으로 하면 된다.

8·15 경축 서울 관악제

오는 광복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8·15 경축 서울 관악제'가 열린다. 한국관악협회에서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음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호른 연구회 등이 참가하여 '한국 환상곡' 등의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2시간, 예약 및 문의는 02) 538-3200으로 하면 된다.

“ 경희가족 모두, 내가 먼저 !
개교50주년, 우리가 빛내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



개교 50주년 공식 엠블럼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 사업 및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21세기를 앞두고 개교50주년(1999년)을 맞이하는 경희대학교는 역동의 시대에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자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앞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고 경희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경희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단체참여자 : 동아리별 / 학과별 / 교동문회별 / 기타 개별참여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동문, 학부모 등
활동내역	안내, 의전, 행사진행, 명예봉사, 홍보예술분야, 통역 등
신청인내/접수	신청서(소정양식)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각 단과대학 교무과에 비치
신청기한	연중
활동기간	1998.6 - 1999. 5 기간 중 정기적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 사회봉사 학점인정 예정 ·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963-4874~6, 961-0931~2 Fax:963-4877, 961-0906